

음식점 및 주점업 노동시장 현황과 특징

임 용 빈*

본고는 음식점 및 주점업의 노동시장 현황과 특징을 살펴봤다. 최근 고용은 임시직·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청년층·고령층 취업자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세부업종별로는 한식·외국식 전문점과 커피 전문점에서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중 한식 전문점은 외국인 인이 많은 경기,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증가했다. 무인단말기, 배달앱 등 새로운 영업방식은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먼저 도입된 후, 현재는 작은 사업체로 확산되고 있다.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종사자 수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매출이 증가할 때마다 고용이 증가하는 수준이 과거에 비해 둔화되었다. 식자재 및 임대료 부담 증가, 무인단말기와 배달앱 등 디지털 전환도 음식점 및 주점업의 고용창출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1. 머리말

음식점 및 주점업은 적은 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지만 그만큼 폐업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업종이다. 취업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고 이직이 빈번하다.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이 다른 업종보다 자유로운 편이다. 사업장 수가 매우 많고 개별 사업장의 규모가 작다. 이러한 이유로 해당 업종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자료 수집이 어렵고, 자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특정 자료만을 분석한 결과로는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음식점 및 주점업 노동시장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봤다. 먼저 ‘지역별고용조사’를 활용하여 2024년 상반기 노동시장 현황과 주요 특징을 설명했다. 다음으로 ‘서비스업조사’를 활용하여 음식점 및 주점업 경영 실태를 세부업종별로 파악했다. 세 번째로,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를 활용하여 경기지수와 고용지수의 추이를 비교했다. 네 번째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ybim@kli.re.kr).

로,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외국인 직원 채용 현황, 프랜차이즈, 무인단말기 등 영업방식에 따른 종사자 수를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매출과 고용의 관계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Ⅱ. 음식점 및 주점업 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

1. 음식점 및 주점업 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매월 조사하지만, 업종별 대분류 단위(숙박 및 음식점업)로 제공하고 중분류 단위는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1년에 상·하반기 2회 조사하면서 업종별 중분류 자료를 제공하는 '지역별고용조사'를 통해 최근 동향을 살펴본다. 2024년 상반기 음식점 및 주점업 취업자는 215.8만 명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2023년 상반기와 비교하여 취업자는 4만 명 증가했다. 2022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 취업자 증가폭 13만 명 수준에 비해 크게 둔화했다.

취업자 증감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취업자는 남성과 달리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남성 취업자의 경우는 2천 명 감소했다. 남성 취업자는 2022년 상반기 약 5만 명 감소했고, 2023년 상반기에 약 8만 명 증가하는 등 증감의 변동이 있다. 반면, 여성 취업자는 4.2만 명 증가했는데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임시·일용직 취업자는 3.3만 명 증가했다. 상용직 취업자는 2.8만 명 증가했는데 2023년 상반기 증가폭 8.5만 명보다 둔화했다. 반면, 비임금근로자는 2.1만 명 감소했다. 음식점 및 주점업에 새로 진입하는 자영업자가 최근 감소하고 있다.

음식점 및 주점업의 연령대별 구성이 달라지고 있다. 최근 업종의 고용을 주도하는 것은 청년층과 고령층이다. 먼저,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24년 상반기 1.7만 명 증가했다. 청년층은 취업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약 4만 명 증가했는데 최근에는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1.9만 명 증가했는데 2021년 이후 계속해서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음식점 및 주점업에 종사하는 40대와 50대 취업자는 감소하고 있다. 2024년 상반기 각각 0.4만 명, 1.6만 명 감소했다. 취업자가 13만 명 증가했던 2023년 상반기에도 40~50대는 불과 1.3만 명 증가했다. 해당 연령대의 고용 감소는 최소 10년 전부터 발생한 일이다. 40대, 50대의 음식점 및 주점업 취업자 비중은 2014년 상반기 기준 7.3%, 9.6%이었다. 이 비중은 10년 동안 줄어들면서 2024년 상반기에는 각각 5.5%, 6.8%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그리고 사회서비스업(공공행정,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의 비중이 증가했다. 대부분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업종이다. 음식점 및 주점업에 자영업자로 진입하는 40~50대 역시 감소했다. 현실적으로 자영업을 시작하기 어려운 청년층과 고령층이 임금근로자 중 임시·일용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표 1〉 주요 부문별 음식점 및 주점업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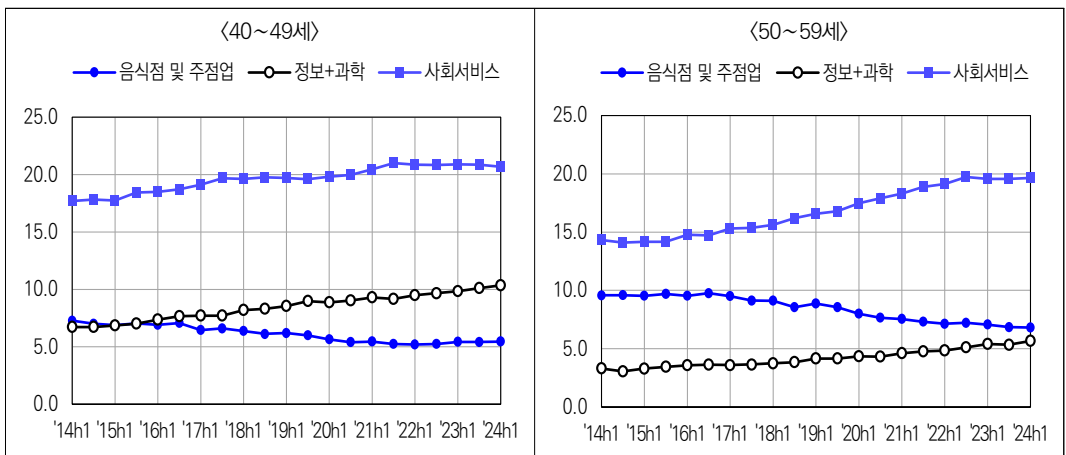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2021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취업자 수
음식점 및 주점업		69	-15	130	53	40	2,158
성별	남성	53	-49	83	17	-2	816
	여성	15	34	47	36	42	1,342
연령대별	15~29세	62	16	48	36	17	631
	30~39세	12	-7	33	17	24	341
	40~49세	-13	-15	14	7	-4	338
	50~59세	-19	-12	-1	-21	-16	456
	60세 이상	27	3	37	15	19	392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	31	26	85	34	28	582
	임시·일용직	15	-15	35	44	33	798
	비임금근로자	23	-26	10	-24	-21	778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그림 1〉 40대, 50대의 음식점 및 주점업 취업자 비중 추이

(단위 : %)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다음은 음식점 및 주점업 취업자의 근로시간,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을 나머지 업종과 비교했다. 실제 주당근로시간은 2024년 상반기 39.9시간으로 나머지 업종보다 1.4시간 많다. 근로시간 차이는 최근 들어 줄어든 것이다. 반면, 임금수준은 훨씬 낮다. 평균 월 임금은 약 180만원(/개월)으로 나머지 업종의 평균임금 323만 원의 55.6% 수준이다. 근로시간을 고려해서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더라도 12,200원(/시간)으로 나머지 업종의 63.4% 수준이다. 임금뿐만이 아니라 근속기간의 차이도 매우 크다. 음식점 및 주점업의 평균 근속기간은 약 4년 4개월이다. 나머지 업종의 근속기간이 8년을 넘어서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짧다. 그만큼 연차에 따른 임금 상승의 기회가 부족하다.

〈표 2〉 음식점 및 주점업 취업자의 근로조건

		2021년 상반기	2022년 상반기	2023년 상반기	2023년 하반기	2024년 상반기
주당 근로시간 (시간/주)	음식점 및 주점업	41.4	40.6	40.8	40.2	39.9
	나머지 업종	39.4	39.2	38.9	38.8	38.5
월 임금 (만 원/월)	음식점 및 주점업	154.9	162.7	176.5	175.4	179.6
	나머지 업종	282.2	292.8	312.4	316.1	323.1
시간당 임금 (원/시간)	음식점 및 주점업	10,357	10,961	11,687	11,896	12,168
	나머지 업종	16,589	17,296	18,433	18,763	19,202
근속기간 (개월)	음식점 및 주점업	53.6	53.3	51.7	47.3	52.3
	나머지 업종	101.3	99.9	103.1	99.1	1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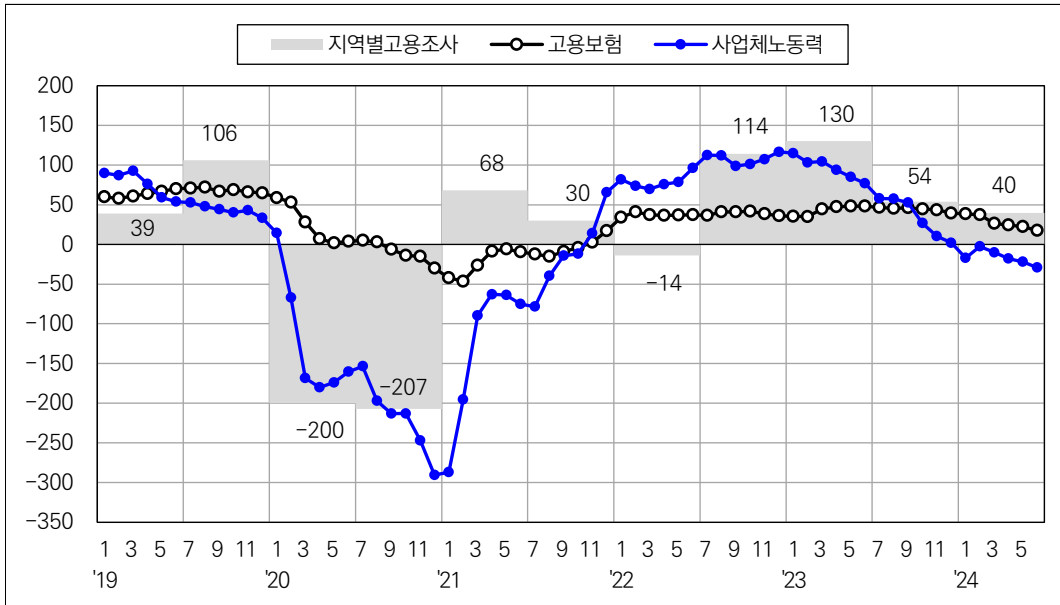
주 : 시간당 임금 = 월 임금/(주당 근로시간*30.4/7), 근속기간 = 조사시점(연월) - 현재 직장에서의 일을 시작한 시점(연월)
 자료 :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

‘지역별고용조사’에서 관찰되는 노동시장 상황을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행정통계’와 비교했다. 2024년 상반기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수는 108.4만 명으로 지역별고용조사의 절반 수준이다. 고용행정통계에서 제공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67.5만 명으로 1/3 수준이다. 그만큼 음식점 및 주점업 취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다는 의미이다.

3종 통계에서 관찰되는 노동시장 현황은 서로 다르지만 고용흐름은 지역별고용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가 비슷하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했던 모습이 두 자료에서 나타났다. 이후 사업체노동력조사 종사자 수는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에 약 10만 명 증가했다. 그러나 2024년 상반기에는 2만 명 감소했다. 따라서 향후 지역별고용조사에서도 사업체노동력조사와 같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2020년, 2021년 제외한 나머지 기간 4만~5만 명 내외의 증가 폭을 유지하고 있다. 음식점 및 주점업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그림 2] 자료원천별 음식점 및 주점업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표 3〉 2022년 서비스업 조사 주요 지표

	사업체 수 (천 개)	종사자 수 (천 명)	평균 종사자 수 (명)	종사자 1인당 매출액 (백만 원)	인건비 비중	영업이익률
합 계	4,073	14,036	3.4	124	25.1%	9.4%
(대)도매 및 소매업	1,520	3,577	2.4	121	27.5%	15.9%
(대)숙박 및 음식점업	859	2,215	2.6	88	16.1%	8.2%
(중)음식점 및 주점업	795	2,041	2.6	87	15.6%	7.9%
(대)정보통신업	123	780	6.4	250	23.0%	7.1%
(대)부동산업	290	692	2.4	301	8.4%	2.0%
(대)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12	1,125	5.3	191	26.3%	6.9%
(대)사업관리·지원 서비스업	138	1,300	9.4	91	35.0%	7.1%
(대)교육 서비스업(학원업)	234	658	2.8	66	25.6%	8.2%
(대)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7	2,458	14.7	81	47.2%	11.6%
(대)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145	444	3.1	126	18.5%	9.5%
(대)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71	652	1.8	72	20.7%	9.2%

주 : 정보통신업은 우편 및 통신업(J61)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연구개발업(M70) 제외.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음식점 및 주점업은 소분류 업종별로 음식점업과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음식점업의 사업체 수, 종사자 수는 57만 개, 155.6만 명으로 각각 71.6%, 76.2%를 차지한다. 음식점업은 상대적으로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이 0.95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고 인건비 비중은 15.4%로 낮다.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사업체 수는 22.6만 개, 종사자 수는 48.5만 명이다.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이 0.59억 원으로 음식점업보다 낮지만 인건비 비중은 16.7%로 높다. 영업이익률은 식자재비 부담이 큰 음식점업보다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이 높다.

음식점업 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세부업종은 한식 음식점업(I.5611)으로 평균 종사자 수는 2.5명으로 더욱 적다. 그중 한식 일반 음식점업은 2.3명,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은 3.1명으로 차이가 있다. 외국식 음식점업(I.5612)은 평균 종사자 수가 3.4명으로 높은 편이고, 인건비 비중이 20.2%로 세부업종 가운데 가장 높다. 기관 구내식당(I.5613)은 비록 사업체 수가 적지만 평균 종사자 수가 5.8명으로 가장 높고, 종사자 1인당 매출액도 1.71억 원으로 대분류 서비스업 중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다 높다. 기타 간이 음식점업(I.5619)은 영업이익률이 7.2%로 낮은 편인데 그중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에서 영업이익률(5.0%)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중 주점업(I.5621)은 평균 종사자 수가 1.7명으로 1인 자영업자 비율이 높다. 따라서 인건비 비중은 낮지만 임차료 부담이 높은 편이다. 비알코올 음료점업(I.5622) 대부분은 커피 전문점으로 인건비 비중이 18.6%로 높고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많은 편이다.

〈표 4〉 2022년 서비스업 조사 음식점 및 주점업 내 세부업종별 주요 지표

	사업체 수 (천 개)	종사자 수 (천 명)	평균 종사자 수 (명)	종사자 1인당 매출액 (백만 원)	인건비 비중	영업이익률
(소)음식점업	570	1,556	2.7	95	15.4%	7.8%
(세)한식 음식점업	329	833	2.5	93	13.8%	9.0%
(세세)한식 일반 음식점업	205	478	2.3	89	13.6%	9.4%
(세세)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72	221	3.1	100	13.8%	8.0%
(세)외국식 음식점업	75	251	3.4	92	20.2%	7.2%
(세)기관 구내식당업	11	67	5.8	171	18.6%	3.1%
(세)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1	3	2.6	85	21.1%	9.7%
(세)기타 간이 음식점업	153	401	2.6	89	14.4%	7.2%
(세세)치킨 전문점	41	85	2.0	107	8.6%	9.5%
(세세)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	47	99	2.1	78	12.9%	5.0%
(소)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226	485	2.1	59	16.7%	8.4%
(세)주점업	108	180	1.7	65	14.0%	9.8%
(세)비알코올 음료점업	118	305	2.6	56	18.6%	7.4%
(세세)커피 전문점	101	272	2.7	57	18.6%	7.2%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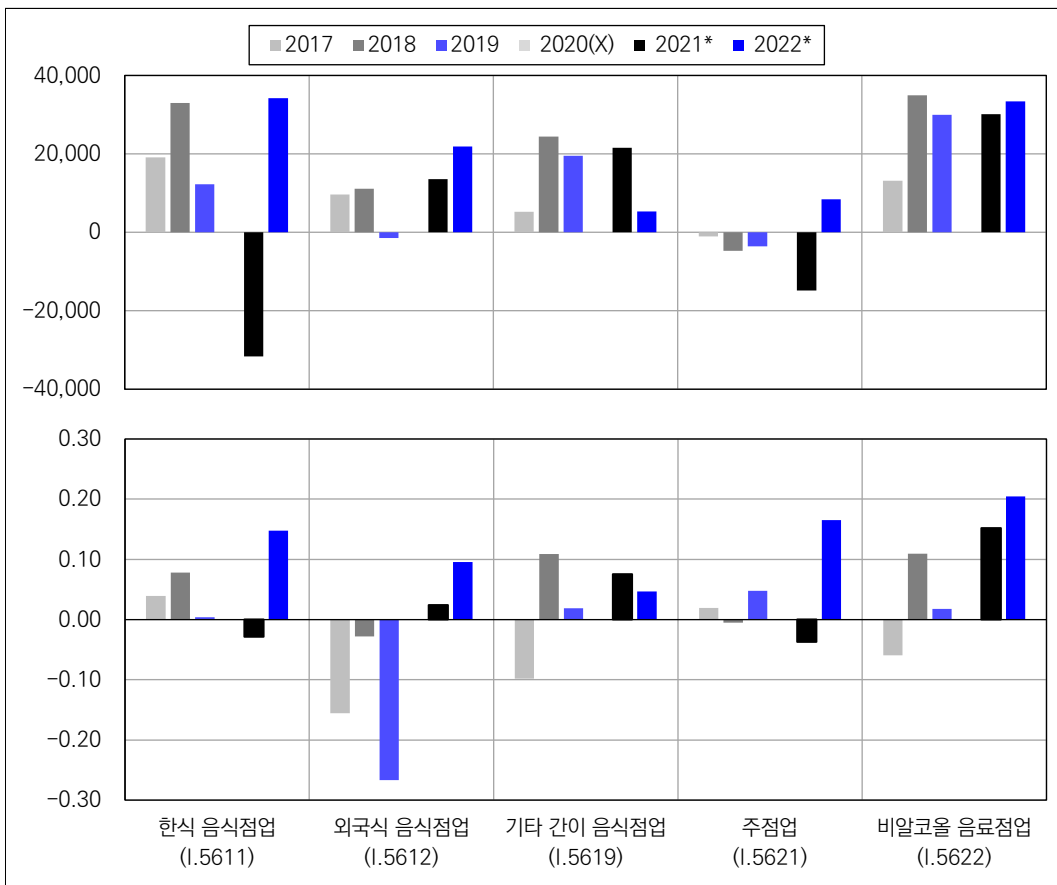
‘서비스업조사’는 2020년 이전²⁾에도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2021년 (+1.8만 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종사자 수가 둔화했으나 2022년 종사자 수는 10만 명 증가했다. 증가폭 10만 명을 세부업종별로 살펴보면, 3.4만 명은 한식 음식점업, 3.3만 명은 비알코올 음료점업, 2.2만 명은 외국식 음식점업에서 발생했다.

고객을 직접 대면해서 응대하는 한식 음식점업과 주점업 종사자는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식 음식점업 종사자 수는 2022년에 회복했으나 주점업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배달 주문 비중이 높은 외국식 음식점업(중식 음식점업)과 기타 간이 음식점업(치킨 전문점·피자 및 햄버거 전문점) 종사자는 증가했다. 그중 기타 간이 음식점업은 2022년 들어 증가폭이 크게 둔화했다. 대부분이 커피 전문점으로 분류되는 비알코올 음료점업 종사자는 2018년 이후 꾸준히 3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사업체당 종사자 수도 2021년 이후 0.1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체와, 사업체에서 고용하는 인원 모두 증가한 것이다. 따라서 지난 5년간 음식점 및 주점업 고용 증가는 커피 전문점의 영향이 매우 크다.

2) 서비스업 조사는 2019년까지 모집단이 조사기반이고 2020년 기준 자료부터 등록기반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세세분류 및 사업체가 추가로 조사되어 2019년 이전 자료와 비교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음식점 및 주점업 내 주요 세부업종 종사자(위) 및 사업체당 종사자 수(아래) 증감

(단위: 위-명, 아래-명/사업체)



주: 서비스업 조사는 2020년 기준 자료부터 등록기반으로 변경됨에 따라 2020년(2019년 대비 증감)은 제외.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3. 음식점 및 주점업 경기동향지수 및 고용지수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³⁾는 전년동기대비 해당 분기의 매출, 식재료 원가, 종업원 수의 변화를 측정하는 현재 경기지수⁴⁾와 향후 3개월간 기대 수준을 전망하는 전망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매출지수의 변화를 ‘사업체노동력조사’와 살펴보면, 2021년 1분기 20만 명 이상 감소했을 당시

3) 전국사업체조사 중 음식점 및 주점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를 모집단으로 하며, 분기마다 3,000개를 조사하고 있다.

4) 전년동기대비 매출/식재료 원가/종업원 수 증감을 묻는 문항은 아래와 같다. 5점 척도로 조사한 항목은 50(매우 감소), 100(동일), 150(매우 증가) 5개 지수 값으로 표현하여 경기지수 및 전망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전년동분기 대비 현재분기의 매출/식재료 원가/종업원 수 ① 감소 ② 동일 ③ 증가

(①, ③ 응답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감소/증가 했습니까? ① 매우 감소 ② 조금 감소 ③ 조금 증가 ④ 매우 증가

매출지수는 67.3이다(그림 4 참조).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체 대부분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의미이다.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종사자 수가 증가로 전환되는 시기에 매출지수는 최대 89.8까지 회복했다. 그러나 2024년 2분기 기준 현재 매출지수는 75.6으로 다시 감소했다. 전망지수 또한 2022년 3분기 95.2를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식자재 원가지수는 조사기간 동안 135~146 수준으로 음식점 및 주점업 대부분이 식자재 원가 부담이 매우 증가했다.

고용지수(현재)는 조사기간 내내 100을 넘지 않고 있다. 100을 넘지 않는다는 것은 종사자 수를 늘린 사업체보다 줄인 사업체가 많다는 의미이다. 2021년에 고용지수는 90 수준이었다. 이 시기에는 사업체의 25% 이상이 전년동기대비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후 2023년 1분기 97까지 고용지수가 회복했으나 현재는 95~96 수준이다. 전망지수는 2021년 이후 97~100 수준으로 조사된 사업체 대부분은 직원 수를 유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전망지수와는 달리 실제로는 종사자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음식점 및 주점업 고용지수를 세부업종별로 살펴봤다. 대부분의 세부업종 고용지수가 100 미만이다. 예외적으로 기관 구내식당업은 2023년 3분기 101.8, 2024년 1분기 100.7로 종사자 수가 증가했다. 2021년 1분기 기준 고용지수가 가장 낮은 세부업종은 출장 음식점업(1.5614)⁵⁾이었으나, 3년이 지나 2024년 1분기에는 다른 업종 수준과 비슷해졌다. 현재는 외국식 음식점업 고용지수가 가장 낮다. 서비스업조사에서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종사자가 증가한 것과 달리 고용지수는 음식점업과 다르지 않다. 2024년 1분기 기준 각각 95.0, 95.5로, 외국식 음식점업보다 높고 기타 간이 음식점업보다 고용지수가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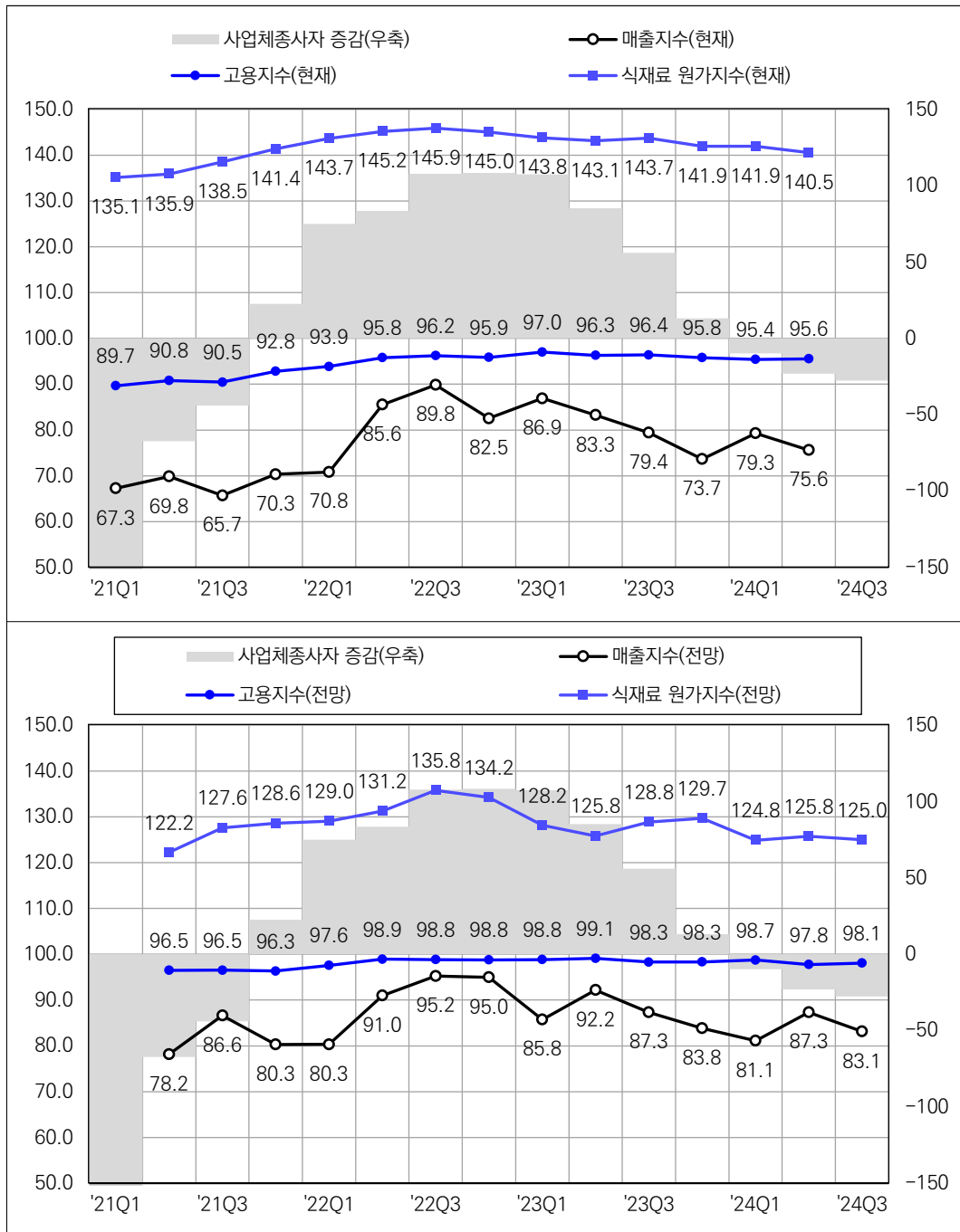
〈표 5〉 음식점 및 주점업 내 세부업종별 고용지수(현재)

	2021년 1분기	2022년 1분기	2023년 1분기	2023년 2분기	2023년 3분기	2023년 4분기	2024년 1분기
(소)음식점업							
(세)한식 음식점업	88.1	92.7	97.0	96.1	96.2	95.6	94.9
(세)외국식 음식점업	88.8	93.0	94.1	94.3	93.7	92.4	94.3
(세)기관 구내식당업	91.9	98.1	98.4	99.4	101.8	99.2	100.7
(세)출장 음식점업	80.6	90.5	95.7	96.7	96.1	98.4	97.5
(세)기타 간이 음식점업	93.0	95.2	96.0	96.5	96.5	96.4	96.8
(소)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세)주점업	89.4	94.6	98.3	97.5	96.9	96.3	95.0
(세)비알코올 음료점업	90.7	95.1	98.6	96.5	97.2	96.3	95.5

주 : 100에 가까울수록 전년동기대비 동일 수준, 50에 가까울수록 매우 감소, 150에 가까울수록 매우 증가.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원자료.

5) 음식점 및 주점업 중 이동 음식점업(1.56142)은 연락처가 불명확한 관계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4]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위 : 현재지수, 아래 : 전망지수)



주 : 100에 가까울수록 전년동기대비 동일 수준, 50에 가까울수록 매우 감소, 150에 가까울수록 매우 증가.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외식산업경기동향지수」 원자료.

4. 영업방식과 고용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⁶⁾는 전국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매출, 비용과 같은 사업실적과 영업방식, 고용인원 등을 조사하고 있다. 그중 프랜차이즈 영업 형태 여부, 주문앱·무인주문기 사용 여부 등 영업방식에 따라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먼저, 프랜차이즈 방식(직영 및 가맹점 포함)으로 운영하는 사업체 비율은 2018년 15.4%에서 2023년 25.5%로 크게 늘어났다. 세부업종별로 피자 및 햄버거, 치킨 전문점 등 기타 간이 음식점업에서 프랜차이즈 비중이 2023년 54.3%로 높은 편이다.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의 프랜차이즈 비율은 2018년 7.7%, 8.6%로 독립 운영하는 사업체가 대부분이었으나 2023년에는 14.7%, 21.1%로 증가했다. 2018년에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4.3명으로, 독립 운영 사업체의 2.6명보다 1.7명 많았다. 프랜차이즈 방식을 채택하는 업종이 늘어나면서 2023년은 각각 3.5명, 2.8명으로 차이가 줄어들었다.

〈표 6〉 영업방식 도입 사업체 비중과 종사자 수 비교

(단위: 명)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프랜차이즈 (직가맹)	사업체 비중	15.4%	20.2%	27.0%	26.3%	21.7%	25.5%
	대상 종사자 수	4.33	3.31	3.73	3.43	3.50	3.51
	비대상 종사자 수	2.62	2.66	2.64	2.65	2.61	2.75
포스단말기 (POS)	사업체 비중	82.7%	88.0%	88.2%	89.2%	91.4%	91.2%
	대상 종사자 수	3.04	2.93	3.10	2.98	2.93	3.05
	비대상 종사자 수	2.13	1.79	1.66	1.82	1.49	1.81
무인주문기 (키오스크, 앱, 태블릿PC)	사업체 비중	0.9%	1.5%	3.1%	4.5%	6.1%	7.8%
	대상 종사자 수	8.76	4.19	4.74	4.09	3.83	3.74
	비대상 종사자 수	2.83	2.77	2.87	2.79	2.74	2.88
배달앱	사업체 비중	7.6%	11.2%	19.9%	29.5%	26.3%	28.7%
	대상 종사자 수	3.69	3.17	3.28	3.24	3.25	3.29
	비대상 종사자 수	2.81	2.75	2.85	2.69	2.65	2.81
배달대행	사업체 비중	5.4%	10.0%	15.4%	18.5%	19.4%	24.1%
	대상 종사자 수	3.47	3.01	3.20	3.37	3.30	3.29
	비대상 종사자 수	2.85	2.77	2.88	2.73	2.69	2.83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 원자료.

6) 전국사업체조사 중 음식점 및 주점업에 해당하는 사업체(2023년 80만 개)를 모집단으로 하며, 매년 3,000개 사업체를 전문면접원 투입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

음식점 및 주점업의 포스단말기 사용 비중은 82.7%에서 91.2%로 증가했다.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50.1%)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체에서 포스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키오스크, 핸드폰 앱,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무인주문기·계산단말기를 사용하는 사업체 비중은 2018년 0.9%로 매우 낮았다. 당시 무인주문기를 도입한 음식점 및 주점업의 종사자 수는 8.8명으로 규모가 큰 사업장에서 먼저 도입했다. 이후 2023년에는 7.8%로 무인주문기 사용 사업체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무인주문기를 도입한 사업장의 종사자 수도 3.74명으로 소규모 사업체에서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세부업종별로 비알코올 음료점업에서 무인주문기 도입률이 3.4%에서 15.9%로 크게 늘어났다. 반면, 한식 음식점업은 2018년 0.1%에서 2023년 4.4%로 여전히 도입률이 낮다.

배달앱 및 배달대행업체를 사용하는 사업체 비중은 2018년 각각 7.6%, 5.4%에서 2023년 28.7%, 24.1%로 크게 증가했다. 세부업종별로 배달앱 사용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기타 간이 음식점업으로 57.8%인데, 그중 치킨 전문점 79.1%, 피자/햄버거 및 유사음식점업 83.4%로 매우 높으나 제과업 및 분식업은 사용 비중이 낮다. 커피 및 음료를 배달앱과 배달대행으로 주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비알코올 음료점업의 배달앱 사용 비중도 2.5%에서 29.9%로 늘어났다. 배달앱을 사용하는 사업체의 직원은 2018년 3.7명에서 현재 3.3명, 배달대행을 사용하는 사업체는 3.5명에서 3.3명으로 감소 폭이 크지 않은 편이다.

5. 매출과 고용의 관계

마지막으로 음식점 및 주점업의 매출 수준에 따라 고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봤다. 2023년 연간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체의 평균 매출은 2.3억 원 수준으로 2018년 1.7억 원보다 약 6천만 원이 증가했다. 서비스업조사와 같이 매출액을 종사자 수로 나눈 종사자 1인당 매출액은 2018년 5,886만 원에서 7,813만 원으로 약 2천만 원 증가했다. 종업원 1명이 생산하는 매출 금액이 늘어났고, 반대로 고용창출이 예전보다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음식점 및 주점업은 사업장에 방문하는 고객을 응대하는 일자리이다. 그리고 재료비, 임대료 인상으로 음식과 서비스에 반영되는 객단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객단가를 고려하여 매출액을 조정하여 계산했다. 객단가는 2018년 12,590원에서 2023년 14,214원으로 증가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모두 2018년의 객단가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조정된 매출은 2023년 2.04억 원, 1인당 매출은 6,920만 원으로 종업원 1명이 생산하는 매출액은 2018년보다 1천만 원 이상 높다.

소분류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업의 1인당 매출액은 5,812만 원에서 6,606만 원으로 약 800만 원 증가했다.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의 1인당 매출액은 6,100만 원에서 7,253만 원으로 약 1,100만 원 증가했다. 두 업종 모두 종사자 1명이 생산하는 매출 금액이 과거보다 증가했다.

〈표 7〉 영업방식 도입 사업체 비중과 종사자 수 비교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객단가(원)	12,590	12,247	12,009	13,710	13,925	14,214
매출(만 원)	16,955	17,440	20,302	18,054	20,089	23,000
1인당 매출(만 원)	5,886	6,240	6,926	6,331	7,158	7,813
객단가 조정 매출(만 원)	16,955	17,928	21,284	16,579	18,162	20,372
조정된 1인당 매출(만 원)	5,886	6,414	7,261	5,814	6,471	6,920
-음식점업(만 원)	5,812	6,222	6,339	5,679	6,300	6,606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만 원)	6,100	6,730	9,464	5,695	6,676	7,253

주 : 2023년 객단가 조정 매출 = 2023년 매출*(2018년 객단가/2023년 객단가).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 원자료.

매출과 고용의 관계는 업종마다 그리고 사업체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래의 다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매출 변화가 개별 사업체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모형에서 i 는 매년 조사되는 3천 개의 관측치를 의미하는데, 전국사업체조사 80만 개를 모집단으로 가중치를 조정했다.

$$Y_i = \alpha + \beta_t \sum_{t=2018}^6 D_{-t} \ln X_i + \gamma W'_i + \sum_{t=2018}^6 D_{-t} + e_i$$

위 회귀식에서 Y 는 종업원 수, X 는 로그화된 연 매출액($\ln X$)으로 매출액이 1% 증가했을 때, 종업원 수는 $\beta \cdot 0.01$ 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lin-log model). D_{-t} 는 연도별 더미변수를 의미하는데, 매출액을 조정한 것처럼 시계열에 따른 특성을 통제하는 용도이다. 또한 매출액이 종업원 수에 미치는 영향이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기 위한 용도이다. 이렇게 모형 1은 매출액과 종업원 수 간의 관계만 살펴보았다.

모형 2에는 종업원 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체 특성, W 를 추가했다. 위에서 살펴본 프랜차이즈, 포스단말기 사용 여부 등 영업방식에 따라 종업원 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 외 사업체 매장의 테이블 수, 임차 여부, 사업주의 연령대 등 사업체 특성을 추가하였다. 비용과 관련된 정보도 사업체 특성에 포함하였다. 매출액 대비 전체 비용 금액의 비율(%), 비용 중에서 식자재 비용 및 임대료 비율(%)이 종업원 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모형 3에는 지역(6개 권역), 세부업종별 산업분류에 대한 각 더미를 추가했다.

먼저, 사업체 특성을 모두 고려하지 않은 경우(모형_1)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2018년 기준 매출이 두 배 증가하면(100% 증가하면) 종사자 수는 2.17명이 증가한다. 2023년 기준 매출이 증가하면 종사자 수는 1.22명 증가한다. 즉 매출에 따라 고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0.9명만큼 낮아진 것이다. 사업체 특성을 고려한 경우(모형_3)에도 매출에 따른 고용 증가 효과는 2018년

1.67명에서 2023년 0.94명으로 0.7명 감소했다.

다음으로 나머지 사업체 특성에 따라 종업원 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모형 3 기준으로 주차공간이 있는 사업체일수록, 사업체 내 테이블 수가 많을수록, 1개월의 영업 일수가 많을수록 종업원 수는 늘어난다. 사업체의 비용 측면에서 종업원 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매출액 대비 비용이 높아질수록 종업원 수는 증가한다. 매출이 증가한다면 영업이익을 포기하면서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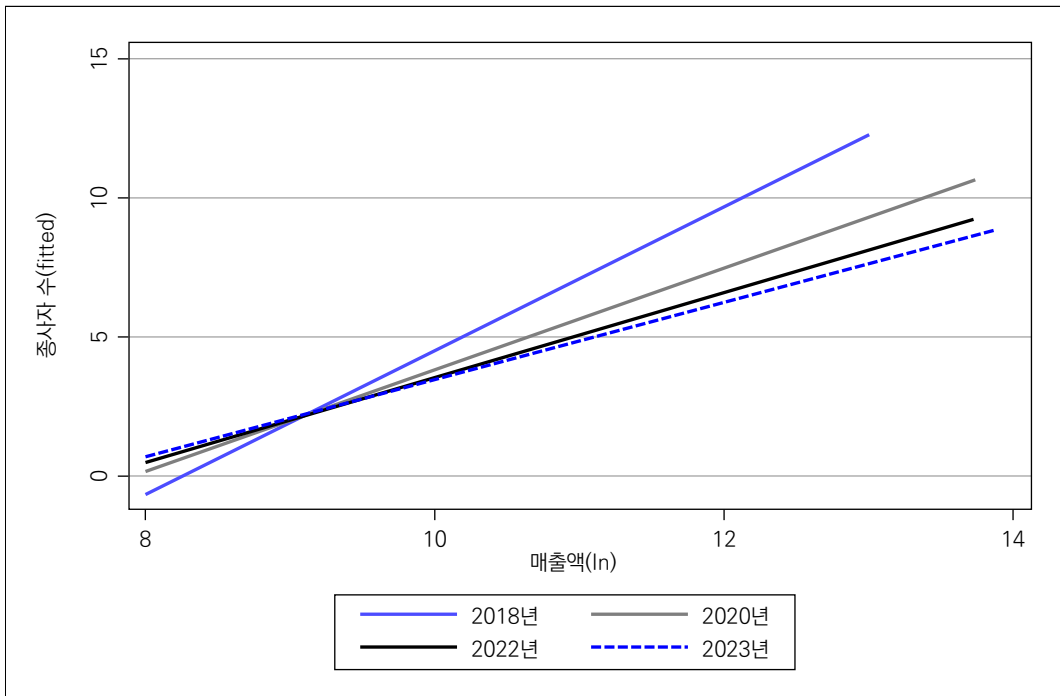
〈표 8〉 연도별 사업장 매출액이 종업원 수에 미치는 영향

	모형_1	모형_2	모형_3
2018년 매출(로그)	2.171 *** (0.00)	1.728 *** (0.00)	1.672 *** (0.00)
2019년 매출(로그)	1.363 *** (0.00)	1.011 *** (0.00)	0.956 *** (0.00)
2020년 매출(로그)	1.527 *** (0.00)	1.150 *** (0.00)	1.137 *** (0.00)
2021년 매출(로그)	1.217 *** (0.00)	0.932 *** (0.00)	0.929 *** (0.00)
2022년 매출(로그)	1.311 *** (0.00)	0.991 *** (0.00)	0.991 *** (0.00)
2023년 매출(로그)	1.216 *** (0.00)	0.948 *** (0.00)	0.940 *** (0.00)
주차 공간이 있는 사업체 여부		0.066 *** (0.00)	0.078 *** (0.00)
테이블 수		0.066 *** (0.00)	0.071 *** (0.00)
1개월 영업 일수		0.032 *** (0.00)	0.030 *** (0.00)
임차인 여부		-0.401 *** (0.00)	-0.380 *** (0.00)
매출액 대비 비용 비율		0.006 *** (0.00)	0.006 *** (0.00)
전체 비용 중 식자재 비율		-0.018 *** (0.00)	-0.019 *** (0.00)
전체 비용 중 임대료 비율		-0.003 *** (0.00)	-0.005 *** (0.00)
그 외 사업체 특성 변수	×	○	○
산업분류 및 지역 더미	×	×	○
Constant	-17.514 ***	-12.880 ***	-12.719 ***
R-sq	0.249	0.335	0.347

주 : () 안은 p-value를 의미하며, * < 0.5, ** < 0.1, *** < 0.01을 의미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 원자료.

[그림 5] 연도별 사업장 매출액이 종업원 수에 미치는 영향



주 : X축은 자연로그단위의 매출액, Y축은 Model_3의 fitted value($\hat{Y}$)를 의미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 원자료.

업원 규모를 늘리려는 사업체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용 중 식자재 비율이 높아질수록, 임대료 지출이 많아질수록 고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체 영업방식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표 9>은 <표 8>의 모형_3의 분석 결과 중 사업체 영업방식 5개 변수를 별도로 분리한 것이다. 여기서 모형_4는 영업방식의 도입에 따른 종업원 수 영향이 연도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나타낸다. 아래의 식과 같이 사업체 경영방식 설명변수와 연도별 더미변수와 곱한 것을 의미한다.

$$Y_i = \alpha + \beta_t \sum_{t=2018}^6 D_{-t_i} * \ln X_i + \gamma_t \sum_{t=2018}^6 D_{-t_i} * W'_i + \sum_{t=2018}^6 D_{-t_i} + e_i$$

먼저,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은 종업원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2018년 0.65에서 2023년 0.29로 영향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포스단말기는 종업원 수 증가에 영향을 주지만 그 효과는 줄어들었다. 2022년, 2023년에는 포스단말기 사용이 고용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준다. 무인주문기를 도입한 사업체는 그렇지 않은 사업체보다 0.57명이 감소하는데, 이 감소 효과는 2018년보다 2023년에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을 사용하는 사업체도

고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코로나19에 영향을 받았던 2020~2022년에는 배달앱 사용이 오히려 종업원 수를 증가시켰으나 나머지는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표 9〉 연도별 사업장 매출액이 종업원 수에 미치는 영향

	모형_3	모형_4					
	전 기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프랜차이즈	0.334 *** (0.00)	0.646 *** (0.00)	0.257 *** (0.00)	0.390 *** (0.00)	0.228 *** (0.00)	0.291 *** (0.00)	0.286 *** (0.00)
포스단말기	0.172 *** (0.00)	0.441 *** (0.00)	0.218 *** (0.00)	0.388 *** (0.00)	0.130 *** (0.00)	-0.078 *** (0.00)	-0.220 *** (0.00)
무인주문기	-0.566 *** (0.00)	-2.721 *** (0.00)	-0.487 *** (0.00)	-0.874 *** (0.00)	-0.499 *** (0.00)	-0.563 *** (0.00)	-0.269 *** (0.00)
배달앱	-0.030 *** (0.00)	-0.151 *** (0.00)	-0.158 *** (0.00)	0.055 *** (0.00)	0.091 *** (0.00)	0.022 *** (0.01)	-0.271 *** (0.00)
배달대행	0.06 *** (0.00)	0.177 *** (0.00)	0.292 *** (0.00)	0.155 *** (0.00)	-0.179 *** (0.00)	0.053 *** (0.00)	0.182 *** (0.00)
Constant	-12.719 ***	-12.719 ***					
R-sq	0.347	0.350					

주 : 〈표 9〉의 분석 결과 중 사업체 영업방식 5개 변수의 분석 결과를 의미함.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 원자료.

III. 맺음말

본고에서 살펴본 음식점 및 주점업의 최근 노동시장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음식점 및 주점업 고용은 여성·임시직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보다 40~50대 비중은 감소하고 청년층과 고령층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근로시간은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취업자에 비해서 주당 1시간 이상 길지만 임금과 근속연수는 매우 낮다.

서비스업조사를 통해 사업체 현황 및 경영실적 등을 살펴본 결과, 사업체 수는 많지만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다른 서비스 업종보다 작다. 종사자 1명이 기여하는 매출액도 타 업종 대비 낮다. 임대료 및 식자재 비용 부담이 높아 인건비로 분배되는 비중도 낮은 편이다. 최근 종사자 수 증가는 커피 전문점이 포함된 비알코올 음료점업 사업체와 종사자 증가의 영향이 크다.

음식점 및 주점업의 경기지수와 고용지수 모두 조사기간 내내 100 미만으로 나타나, 매출과 고용 감소가 확인된다. 경기지수는 75 수준으로 평균적으로 모든 사업체의 매출이 조금 감소한

셈이다. 고용지수는 96 수준으로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채용하는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를 통해 프랜차이즈나 포스단말기, 배달앱 등 영업방식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살펴봤다. 주로 비알코올 음료점업에서 새로운 영업방식의 도입이 활발하게 나타난다. 종사자 수 차이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새로운 영업방식을 채택했으나 현재는 규모가 작은 사업체에서도 도입하고 있다.

사업체 종사자 수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2018년 기준으로 매출이 두 배 증가하면 종사자 수는 1.67명 증가했으나 현재는 0.94명으로 줄어들었다. 사업주는 영업이익을 포기하더라도 고용을 늘리는 경향이 있지만 식재료 및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종업원 수를 줄이고 있다. 그리고 무인단말기와 배달앱을 사용하는 사업체일수록 종업원 수가 감소할 확률이 높아졌다.

기존 음식점 및 주점업의 고용을 이끌었던 것은 40~50대가 자영업에 진입하면서 동시에 고용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커피 전문점을 중심으로 사업체 수와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내수 경기 악화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늘어나고 있고, 40~50대의 자영업 진입이 감소하는 등 경기 및 고용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식자재 및 임대료 부담, 무인주문기와 배달앱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된다면 음식점 및 주점업의 고용창출 능력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KLI**